

# 2017년 3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 이광훈 목사(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VA)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그리스도인의 자유

### 찬송:

272 장 (통 330 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68 장 (통 202 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20 장 (통 278 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여는 질문

몸은 얼마든지 자유하지만, 마음은 자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거나 무엇인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들이 사람을 중독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자유를 빼앗습니다.)

### 본문: 갈라디아서 5:1-15

-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도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 7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 8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 9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 본문 이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얻은 자유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1 절). 하지만 그들이 "유대주의자들"(Judaizers)의 선동에 넘어가 율법을 지킨다면 얼마든지 그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만일 그 싸움에 지는 사람은 다시 "종의 멍에"를 뭍 수 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 일이 어떠한 결과를 빚어내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이 됩니다(2 절).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이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둘째, 할례받는 일은 단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웁니다(3 절). 할례는 단순히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종의 가입 예식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한 엄숙한 공약인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4 절). 율법을 지키는 일은 곧 배교 행위로서 그 일로 인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또 다시 13 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특성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모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결코 방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됩니다(13 절, 여기에서 "육체"라는 용어는 억제되지 않은 이기적인 욕심을 가리킵니다). 자유를 누리는 일을 오해하여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15 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본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동체를 위한다고 할 때에, 개인의 덕목이 아닌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사랑을 통하여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일입니다(13 절).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종 노릇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를 그릇 사용하는 육체의 힘, 자아의 욕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종 노릇을 통하여 율법을 성취합니다(14 절; 참고. 레위기 19:18; 로마서 13:8-10).

## 말씀 속으로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무엇이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까?(6절)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2)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13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일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참고. 갈라디아서 6:19-21)

## 삶 속으로

(1)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는 상태를 가리키나,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으나,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자신의 단독 의지로 삶의 목표를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interdependence)을 뜻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홀로 선다"는 점에서 "자주(自主)", 혹은 "독립"(independence)을 뜻합니다.)

(2)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는 일"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고 의무만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을 절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으로 종 노릇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암송 구절:** 갈라디아서 5:13(한 주간 동안 암송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자녀와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자기하고 싶은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2) 누구의 종이되어 산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또한 종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 2017년 3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 이광훈 목사(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VA)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 찬송:

221 장 (통 525 장) 주 믿는 형제들

600 장 (새 242 장) 교회의 참된 터는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 여는 질문

가정이나 직장, 교회를 무론하고 어느 단체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갈등의 요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갈등을 다룰 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person 보다는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issue 자체에 집중하거나, 혹은 서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한다면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에베소서 4:1-6

-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 본문 이해

교회 안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이러저러한 갈등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 장 28 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3 절). 하나 되기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하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2 절).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육적인 교만이든, 영적인 교만이든, 교만이야말로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하셨는데(마태복음 11:30), 만일 교만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입니다. 또한 "사랑과 용서"로 하나될 수 있습니다 -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2 절). 서로 용납하는 일은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누우칠 때 가능합니다. 나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전혀 잘못이 없고, 상대방만 무조건 잘못했다고 고집한다면 절대로 하나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그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기꺼이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매정하고 냉정하게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남의 잘못에 대하여 관용해야 할 이유는,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은 어제 나의 잘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하나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지만, 그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없지만, 그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참아 줄 이유가 없지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하여,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6 절),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될 수 있습니다.

## 말씀 속으로

(1)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 보십시오(4-6절).

(“성령도 한 분이시니” - 4절; “주(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도 한 분이시요” - 5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 6절)

(2)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말하면서 “몸이 하나다”라고 말합니다(4절).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몸에는 여러 지체들, 즉 머리, 눈, 코, 귀, 입, 팔, 손, 다리, 발 등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지체들이 함께 연결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한 의도는 성도들이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12장 12-31절)

## 삶 속으로

(1)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비전, vision 이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공통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거나 배너, banner 를 부착하거나 해서 모든 사역의 초점을 그것에 맞춘다면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 하나된 교회인가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깨뜨리는 주된 요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암송 구절:** 에베소서 4:4(한 주간 동안 암송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녀와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만일 친구와 싸웠다면,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니? 네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을까?

(2) 친구 간에, 혹은 형제. 자매 간에 싸우지 않고 지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 2017년 3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 이광훈 목사(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VA)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십자가의 원수들

### 찬송:

150 장 (통 135 장) 갈보리산 위에

151 장 (통 138 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270 장 (통 214 장) 변참는 주님의 사랑과

### 여는 질문

제단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모욕과 조롱과 수치 등, 십자가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느낌을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질문입니다.)

### 본문: 빌립보서 3:17-21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 본문 이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십자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곧 "십자가의 원수들"(enemies of the cross)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변장술에 능합니다. 그야말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입니다. 기독교 사이비(이단) 교주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단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정통 기독교보다 더 진짜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도 방언이 있고 병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갑니다. 세상에서 받을 복을 강조합니다. 세상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 하나, 거기엔 십자가가 없습니다. 능력은 있으나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요가 있으나 그것은 십자가의 부요가 아닙니다. 영광이 있으나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이 아닙니다. 거기엔 십자가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원수들의 행태는 매우 비윤리적입니다.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19 절). 여기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의 신은 곧, 자기 "배"(stomach)라고 했습니다. 배는 채워도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17 절). 이 권고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헌신한 자신의 삶을 본 받아, 십자가의 사람들로 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실행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는 십자가에 소극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기념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십자가의 원수들과 싸울 영적인 무기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 말씀 속으로

(1)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확신에 찬 근거는 무엇입니까?(17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을 앞장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을 도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 십자가의 원수들의 보여주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19절)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 삶 속으로

(1) 주변에 기독교 사이비(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2)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burden)을 등에 지고 가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얼마든지 기쁨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미국의 복음전도가인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등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것들을 지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하라고 부름받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 자체가 짐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충분히 가볍게 지도록 해주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0-21절에서 바울이 말한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습니다.)

**암송 구절:** 빌립보서 3:18(한 주간 동안 암송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녀와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십자가를 볼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니?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말해 볼까?

(2)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 분들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까? 이 시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 2017년 3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 이광훈 목사(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VA)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

### 찬송:

28 장 (통 28 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305 장 (통 405 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24 장 (통 380 장) 나의 생명 되신 주

### 여는 질문

각자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행복한 삶은 누구나 꿈꾸는 삶입니다. 보통 물질이 넉넉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나름대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부탄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남한의 반 정도이고 소득 수준은 세계 110위이지만 거리에는 노숙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주민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돈이나 큰 자동차는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집, 가족, 충분한 식사, 그리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마음입니다.")

###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16-18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본문 이해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이라고 단언합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과 영생과 관련해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작곡가 하이든(Joseph Franz Haydn)은 그가 지은 음악들이 모두 기쁨에 차 있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곡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는데 어찌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근심이 없고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는 상태와 무관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잠시 외관상 드러났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밖으로 쉴새 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명령은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의 초점은 정해진 시간, 하루도 빼놓지 말고 계속 입술을 움직여 기도의 말을 하라는데 있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꿈 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흔히 기도를 가리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쉬듯, 우리의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러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현존”(the presence of God)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 앞에 펼쳐진 어렵고 힘든 현실만을 보면, 그야말로 눈 앞이 캄캄해져 낙심, 원망, 불평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러한 현실 배후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간 현실만 바라보면 가슴 깊이 한이 맺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겠지만, 그는 그러한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가 훗 날, 형제들과 재회했을 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세기 50 장 20 절). 우리 눈 앞에 보이는 모든 일, 모든 현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말씀 속으로

(1)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in Christ Jesus)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의 삶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the will of God)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주로 구원과 부르심, 그리고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고. 에베소서 1:5; 골로새서 1:9; 데살로니가전서 4:3.)

## 삶 속으로

(1) 우리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끊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은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에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아울러,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충분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2)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기도란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평소에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한 것을 나누면서 기도의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암송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16-18(한 주간 동안 암송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녀와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날이 있었다면 언제였니? 그리고 왜 그 날이 그토록 행복했을까?

(2) 기도는 무엇이라 생각하니?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